



미국 경제, 완만한 성장세 지속

김세중 선임연구원

- 11월 30일 미 연준은 10월부터 11월 중반까지 데이터로 작성된 베이지북을 통해 세인트 루이스 지역을 제외한 11개 연방준비은행 관할 지역의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발표함.
 - 소비지출은 필라델피아 등 6개 지역의 자동차판매가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냈으며, 제조업 주문 및 생산도 세인트 루이스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증가함.
 -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, 고용시장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함.
 - 베이지북은 미국 경제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낮지만 2년 이상 9%대를 상회하고 있는 실업률을 낮추기에는 성장세가 충분치 않다는 기존의 시각을 다시 한 번 확인함.

- 한편, 11월 29일 컨퍼런스보드는 11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달대비 15포인트 상승한 56을 기록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2011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.
 - 항목별로는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지수가 10월 27.1에서 11월 38.3으로 상승하고, 6개월 후 경기에 대한 기대지수도 10월 50.0에서 11월 67.8로 상승했으며, 고용과 임금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자 비율도 전월대비 각각 2.1%p, 3.8%p 상승한 10.8%, 11.1%로 나타남.
 - 컨퍼런스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와 함께 블룸버그의 11월 소비자 안심지수와 톰슨 로이터/미시건 대학의 소비자 기대지수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.
 - 소비자 기대심리 개선은 추수감사절부터 연말까지 이어지는 쇼핑시즌 동안 소매 매출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, 전미소매업연합회(NRF)에 따르면 2011년 추수감사절과 다음날인 블랙 프라이데이 소매 매출이 전년대비 각각 18%, 26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
(Bloomberg, 11/30)